

“IMF 때 아버지 일용노동자로...경험해서 더 실제 같아”

‘소주전쟁’ 이제훈, 감독 하차에 “완성도 위해 노력”... “‘시그널 2’ ‘모범택시 3’도 기대 충족할 것”

“제 어린 시절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당시와) 현재 무엇이 달라졌는지 영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영화 ‘소주전쟁’에 출연한 배우 이제훈이 지난 2일 이번 영화에서 매력을 느낀 지점에 관해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 점이 흥미로웠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주전쟁’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소주를 만드는 회사 국보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실제 당시 있었던 진로그룹

인수전을 모티브로 삼아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제훈은 국보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글로벌 투자사 솔킨의 인범 역을 연기한다. 그는 어린 시절 IMF 외환위기 여파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영화에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이제훈은 “IMF 시절은 중학생부터 대학 다니던 때로 기억한다. 자영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IMF 이후 일용노동자로 일하시는 모습을 봤다. 힘든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세대”라며 “학창 시절 얘기여서 그런지 (영화가) 더 실체처럼 느껴졌다”고 돌아봤다.

영화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국보의 재무이사 종록(유해진 분)과 인범의 대비를 통해 관객에게 생각할 지점도 던진다. 종록은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된다’며 회사를 자기 인생과 동일시하는 반면, 인범은 ‘일은 일이고 인생은 인생’이라며 회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제훈은 “삶과 일에 관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다”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면 이 영화를 통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권했다.

영화는 최윤진 감독과 제작사가 대립



영화 ‘소주전쟁’의 배우 이제훈 <쇼박스 제공>

을 ‘현장연출’로 표기했다.

최 감독은 시나리오를 탈취하지 않았으면서 법원에 감독계약해지 효력정지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작사 더랩프 측은 최 감독의 각본이 원작자의 시나리오를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영화 크레딧에 최 감독을 지운다고 밝혔다.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최 감독의 감독계약해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소주전쟁’의 제작보고회, 시사회 등의 일정은 감독 없이 배우들만으로 진행됐다.

이제훈은 이에 관해 “함께 작업하다가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해 중간에 그만두거나 새로 합류하는 일은 작품마다 있다”며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와 닿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객에게 짐을 없이 온전하게 이 영화를 선보이려는 목표 의식이 뚜렷했다.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

해 의견을 많이 냈다”며 “극장에서 보니 고생한 보람이 느껴진다. 이번 작품에 유독 애착이 많이 간다”고 했다.

이제훈은 요즘 드라마 두 편을 동시에 촬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제작 단계부터 관심을 끄는 드라마 ‘시그널 2’와 ‘모범택시’ 시즌 3이다. 그도 후속작을 선보이게 된 것에 기대감이 크다.

그는 ‘시그널 2’ 촬영에 관해 “10년 만에 함께 모여서 연기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저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라며 “그때보다 제가 성장했다는 생각도 든다. 시야가 확장되며 여유도 갖게 됐다”고 했다.

“저도 ‘시그널 2’와 ‘모범택시 3’에 대한 기대가 커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대에 충족하는 작품이 될 거라는 점이지.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5월 9일 천문역원 (062)673-2427
子	쥐띠: 일단 시작하면 그럭저럭 된다. 36년생 찬 음식을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48년생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60년생 알게 모르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72년생 지나침은 모자람만 같지 못하다. 84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96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이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하자. 08년생 이제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거리감이 느껴져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행운의 수: 5,7 행운의 색: 빨간색
	소띠: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다. 37년생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지 마라. 49년생 올바른 정보를 구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61년생 믿지 못했던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73년생 자존심을 죽이고 실리를 챙겨라. 85년생 사통팔달로 안되는 일이 없으니 속이 시원해진다. 97년생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를 조심하라. 09년생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행동에 옮겨보자.	행운의 수: 1,2 행운의 색: 노란색
寅	호랑이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38년생 지금까지 진 신세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50년생 빠진 사람은 없는지 두루두루 잘 살펴보고 챙겨라. 62년생 때로는 빨리 체념할 수 있어야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74년생 둘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한다. 지나친 방심은 금물의 날이다. 86년생 기쁨과 희망의 날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진다. 98년생 마음을 열고 상태를 있는 그대로 봐주어야 할 것이다. 10년생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신경 써야겠다.	행운의 수: 0,5 행운의 색: 분홍색
	토끼띠: 망신수가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라. 39년생 만만치가 않다. 잘못 판단하면 낭패다. 51년생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오늘은 참고 넘어가자. 63년생 기분이 상쾌하고 힘이 솟는다. 75년생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다. 마지 않아날 수 없는 족쇄같은 느낌이겠다. 87년생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털어버려야 한다. 99년생 각오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별일 없이 넘어가게 되니 다행이다.	행운의 수: 0,6 행운의 색: 파란색
辰	용띠: 앞날이 캄캄하고 걱정스럽다. 40년생 느낌이 좋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되겠다. 52년생 집안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부간에 마찰이 일어난다. 64년생 좋은 인연은 가까이에 있다. 76년생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된 길을 택해서 일을 진행하자. 88년생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생기니 무엇보다 마음도 지치지 쉬운 날이다. 00년생 갈 길은 멀고 할 일이 많은 날이다. 장래성을 보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수: 4,9 행운의 색: 분홍색
	뱀띠: 동서남북에 운이 활짝 열렸다. 41년생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까지 피곤하게 할 수 있다. 53년생 사소한 의견차이가 있어도 조금만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해결된다. 65년생 마음의 감정이 커지기 전에 솔직하게 말하고 풀어야 한다. 77년생 가까운 사람을 섬세하게 대하면 복이 화로 바뀌게 될 수 있다. 89년생 상대를 비난하지 마라. 오히려 자신이 원인이 될 수 있다. 01년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행운의 수: 2,3 행운의 색: 은색
午	말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42년생 건강 운이 좋지 않다. 무조건 집에만 있으려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54년생 혼자서 힘으로는 버겁다. 도움의 손길이 없어 불리하다. 66년생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78년생 들뜬 마음을 잡으려면 편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90년생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마라. 02년생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니 끝까지 해나간다. 장래성을 보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수: 5,8 행운의 색: 검은색
	양띠: 결만 보고 판단하면 후회한다. 43년생 금전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55년생 남의 사정을 봐줄 때가 아니다. 자신의 입장부터 고려하라. 67년생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79년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면 더 피곤한 일이 생긴다. 91년생 자신을 돌시켜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다. 03년생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니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친다.	행운의 수: 0,8 행운의 색: 초록색
申	원숭이띠: 실력보다 저평가를 받는다. 44년생 가만히 있어야 한다. 얻는 것도 없이 괜히 굶어서 부스럼만 만들 수 있다. 56년생 양손에 땀을 쥐고 갈등하고 있다. 68년생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정도로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는 날이다. 80년생 인생의 성패를 이 짧은 시간에 가늠할 수는 없다. 긴 안목으로 더 참고 기다려보라. 92년생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의 불평불만이 커지게 된다. 04년생 취업에 관한 좋은 정보를 얻게 된다.	행운의 수: 4,7 행운의 색: 노란색
	닭띠: 호랑이 없는 산중에 여우가 왕노릇한다. 45년생 길게 멀리 보고 사람에게 투자를 한 것이 복리효과가 되어 돌아온다. 57년생 희비가 교차되고 일이 많은 날이다. 69년생 비교적 손조울게 잘 풀린다. 움직임이 많을 것이다. 81년생 큰 욕심을 내면 오히려 마음의 병이 온다. 93년생 다소 힘들더라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안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05년생 힘들어도 참는 것에 대한 보답이 돌아올 것이다.	행운의 수: 1,2 행운의 색: 노란색
戌	개띠: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46년생 논쟁할 일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는 것이 좋다. 58년생 여유를 즐겨라. 즐기는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70년생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82년생 신운이 가장 큰 재산이니 한번 뽀는 말을 지켜야 할 것이다. 94년생 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쓸데는 쓰고 아낄 데는 아껴라. 06년생 여유롭고 행복한 웃음으로 보낼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수: 1,6 행운의 색: 검은색
	돼지띠: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35년생 주변 사람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신의 감정을 속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47년생 뽀족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아 고심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59년생 가족간의 사랑과 끈끈한 정을 확인하게 되는 날. 71년생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좋은 운이 돌아온다. 83년생 조건이 좋아도 선불리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 95년생 어설픈 행동은 도리어 상대의 화를 자극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하라. 07년생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끊을 것은 과감히 끊어라.	행운의 수: 3,8 행운의 색: 갈색

tbN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정회준 진행자: 노희설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남도매거진 (16:05~16:55) 프로듀서: 이진아 진행자: 장원나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섭하지라~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권유경 진행자: 윤지현 작가: 정안숙 출몰운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충겨운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달리는 라디오 (18:05~19:53) 프로듀서: 김미경 진행자: 최유규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KCTV 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주요 소식을,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지역채널 커머스 〈 못나 이 김치, 반전조 노가리 〉 전국 농수산업체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작 방송되는 지역채널 커머스, 충북의 대표 김치 브랜드 '못나 이 김치'와 포항에서 직접 생산된 '반전조 노가리'가 지역민을 찾아가나. 방송 : 6월 2일(월)~7일(토) 06:00~07:00, 16:00~17:00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네트워크발굴 서울공감 〈 군산 활어회, 울산 공학 맛집 편 〉 4곳의 지역케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현지인이 찾는 지역 맛집 탐방 프로그램. 이번 주는 상성하고 맛있는 맛으로 유명한 군산의 활어회 식당과 울산에서는 고소한 풍미로 이름난 한우생곱창 맛집을 찾아가나. 방송 : 6월 3일(화)~7일(토) 14:00~14:30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KCTV특집 〈 현충일 특집 '강뉴, 승리의 이름으로' 〉 한국전쟁 당시 무패신화의 전설을 남겼던 에티오피아의 강뉴(Kangnew)부대의 기록과 역사를 되돌아 보고 당시의 아픔과 헌신했던 이들을 기억한다. 방송 : 6월 6일(금)~7일(토) 13:00~13:50